

중고차 아무지게 사는 요령

중고차 구매의 기본은 차량가격이 떨어지는 속도, 즉 감가 속도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다. 감가 속도는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고급 대형차나 수입차는 다른 차에 비해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지만 수입차와 고급 대형차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만큼 자신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도 않고 중고차 값이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살 것도 못된다.

같은 차종이라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흰색, 검은색, 은색 이외의 색깔은 중고차 값이 보통 30만~50만 원은 싸다.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외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더 싼 중고차를 원한다면 연간 주행거리가 평균치인 2만km 내외보다 다소 많고 가벼운 사고 이력이 있는 차가 안성맞춤이다.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의 기능에 아무 이상도 없는 가벼운 사고가 있었더라도 정비업체의 성능 점검이 완료된 상태라면 운행에 별 무리가 없다.

싸게 사려면 연초를 노려라

중고차는 1~2개월 사이에 몇 100만 원씩 가격 차이가 벌어질 만큼 시기에 민감하다. 구매시점을 잘 택하면 중고차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중고차 구매의 최적기는 연초다. 가격을 매기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가 차량

의 나이를 가리키는 '연식'이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식이 바뀌기 전에 팔려는 사람은 많고 반대로 사려는 사람은 적다. 미처 팔리지 않은 차량이 적체돼 있는 1~2월에는 더 좋은 조건에 중고차를 살 수 있다.

원하는 차종이 있다면 신차 출시를 기다려도 괜찮다. 중고차 가격은 보통 신차가 나오고 어느 정도 판매가 소화된 3개월 후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신차는 외관과 성능이 대폭 바뀌는 '완전 변경(풀 체인지)'이고 1~2년 단위로 선보이는 부분 변경 신차는 중고차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논외로 친다.

가격보다 안전이 우선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등본을 통해 압류나 저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거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막을 수 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신차는 상관 없지만 중고차를 살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 차량에 붙은 압류나 저당은 대개 자동차세나 과태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액 체납분이지만 여러 건이 모이면 큰 부담이다. 특히 차량검사 미필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연체되면 몇 10만 원씩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여유가 된다면 새 차 사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고
 차가 꼭 필요하다면 중고차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다.
 큰맘 먹고 사는 내 차, 기왕이면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요령들을 모아 봤다.



가 해당 업체로 변경됐고 '상품용' 이라고 쓰여 있다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압류와 저당도 해결된 상태이
 므로 안심할 수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소유자에 개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아직 소유권 이
 전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
 해야 한다.

또 외관과 흡집보다는 '중고차 성능점검표' 를 유심히
 봐야 한다. 자동차 정비기관에서 발행하는 성능점검표
 는 부품별 수리·교체 여부, 주요 장치의 상태 등과 함
 께 사고 여부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다. 중고차시장에
 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능점검표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성능점검표
 만으로는 알 수 없는 ▲냉·난방 기능 ▲잠금장치와 창
 문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오디오 등이 제대로 작동
 하는지와 섀시부의 누수 여부는 직접 살펴봐야 한다.

온라인 중고차업체에 나온 매물이 시세보다 터무니없
 이 낮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보험개발원 사고 이력 사
 이트(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여부를 꼼꼼
 히 살펴본 뒤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로는 차가 없
 는데도 호객용으로 올려놓은 '미끼 매물' 도 비일비재하
 다는 것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중고차업체 관계자
 는 "온라인에 나온 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실제 시
 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직거래해야 싸게 살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가명·여) 씨는 온라인 중고
 차카페를 통해 중고차를 직거래로 사면서 시세보다 50
 만 원은 덜 줬다며 좋아했지만 이내 속았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소모품 교체주기가 훨씬 지난 것이다. 정비업체
 에 맡겼더니 각종 비용이 5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차량은 주행거리 2만km마다 구동벨트와 냉
 각수, 브레이크 패드, 연료필터, 브레이크액 등의 소모
 품을 교환해야 한다. 배터리는 4만~6만km 사이에서 바
 꾸 줘야 차량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들을 모두 정비
 하려면 경차라도 50만 원은 더 든다.

중고차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어 직거래
 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소모품 교체주기를 속
 이는 경우가 많고 거래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 중고차전문업체 카즈(www.carz.co.kr)의 문건웅 대
 표는 "믿을 만한 업체를 통해 경정비와 소모품 교환, 광
 택 내기 등의 상품화 작업을 마친 차량을 사면 실제 가
 격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중에 문제
 가 발생하면 관인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
 는 만큼 비슷한 가격이라면 굳이 직거래를 고집할 필요
 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